

Homework3-3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Spring 2013
이광근 교수님

중어중문학과 2013-

노효주

Exercise3. 인간행동예측

사회는 Social Network 데이터로 넘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역사심리학자(psychohistorians)들이 아주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Song Chaoming,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그는 개인의 핸드폰 기록을 근거로 93%의 정확도를 가진 그 사람이 무슨 시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의 예측을 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예측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09년에 H1N1라 불리는 인플루엔자(influenza)가 발생했을 때, GLEAM(Global Epidemic and Mobility Model)이 일주일 만에 이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언제 최고조에 달할 것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살아있는 지구 플랫폼(Living Earth Platform)”이라 불리는 지구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FuturICT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나에게 모든 사람들의 Social Network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경제, 전쟁, 질병 등의 문제들을 포함해 인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그 예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구 차원의 자연재해를 예측해서 인류의 멸망을 막는 대책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예측해서 기업, 개인 더 나아가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 이러한 Social Network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면, 사회적, 범지구적인 문제를 예측하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와 삶을 예측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

미니홈피, Facebook, Twitter 등에는 주로 개인적인 소식과 상황들이 게시된다. 즉,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대학이라는 더 넓은 사회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말에도 반응하는 것이 다르니,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야할지 고민될 때가 많다. Social Network 데이터를 이용해 상대의 성향과 기호를 파악해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반응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 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개인과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에서 늘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문학에서 자료의 근거는 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다. Social Network 데이터는 범주화된 인물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해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제 개인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그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유용해보이기도 하지만 섬뜩하게 들리기도 한다. 사람을 만나가면서 그들을 알아가고, 또 다투면서 정들어 가는 것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묘미이기도 하니까. 이런 Social Network 데이터를 통한 예측 행위 역시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확한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재미와 짜릿함을 느낄 수 없게 되니 말이다.